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2호 [루게 제24645호] 주제 103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힘찬 진군과 더불어 지금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어디에나 건전한 혁명적인 분위기가 차넘치고 있다.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21세기의 문명개화기를 열어가는 오늘의 현실은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게 벌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소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덕의 역할은 더욱더 증진된다. 도덕을 떠나서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공고히 할 수 없으며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도 잘해나갈 수 없다. 도덕생활기풍을 세우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도덕규범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벌여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덕교양의 준비방향을 세차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높이 발양시키고 도덕생활에서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할 줄을 명차이로 만들어야 한다.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전체 인민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도덕이라는 혁명가의 품격을 규정하는 기본정표의 하나이다. 혁명가는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뿐 아니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닌 참다운 인간적품성의 소유자로 되어야 한다. 량심이 없고 도덕의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가로서의 삶을 빛내어나갈 수 없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의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강대한 혁명정신과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일뿐 아니라 가장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지닌 사람이다. 우리가 당의 의도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신분자로 키워려면 그들이 높은 정치사상적풍모와 함께 고상한 문화도덕적풍모를 지니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 전면에서 나가고있는 현실은 전체 인민을 훌륭한 정신도덕적풍모의 소유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사회에 건전한 도덕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도덕을 체질화한 사람에게는 의리가 없고 배의도덕을 지킬 줄 모르는 사회철수와 공중도덕을 어가하는것과 같은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려는 과정이 곧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정이다. 사회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갈 때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대대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도덕은 사회관계, 사회발전의 기초이다. 령도자와 전사들사이, 혁명동지들사이에서 사랑과 믿음, 존경과 신뢰, 화목과 협조가 지배하는 사회가 전도양양한 사회이다. 역사와 현실은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건전한 리리도덕관계가 허물어지면 민족도 나라도 혁명도 망쳐 버린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사상지적단결이 도덕의 리적단결과 결합될 때 그것은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통일단결로 될 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보다도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있다. 온 나라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 팍 차넘치고있으며 천만군민이 서로 돕고 이끄는 사랑의 힘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일심단결의 대풍모가 힘있게 파시되고 있다. 전쟁로 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으로, 참다운 애국자로 떠받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는것과 같은 미풍이 날마다 꽃피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적책우전에는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된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표시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차지대 본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는 도덕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혁명대대의 정치적사상적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며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최후승리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기 바란다.

오늘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선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내부에 반동적인 사

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유포시켜 사람들을 정신적불자, 도덕적타락분자로 만들고 사회주의제도의 정신도덕적기초를 허물어보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검은 속셈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세계화》와 《국적없는 문화》의 흐름 속에 말려들어 귀중한 민족정통이 말살되고 사회에 패륜패덕이 만연되어 진로를 겪고있는 여러 나라들의 비극적운명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도덕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는 더욱이 특이한 무장한 사람으로 령도자의 믿음과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도덕화하고 인간의 깨끗한 양심을 소중히 간직할 천만군민이 있었기에 혁명의 온갖 과업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끈적임이 우리 조국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활짝 꽃피어나고 나라를 빛을 뿌릴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교양의 준비방향을 온갖 이색적인 생활양식과 생활풍조를 철저히 쓸어버림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도덕기풍을 확립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당의 의도에 맞게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과 전선을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내부에 반동적인 사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지향시키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모를 따라배워 대원수님들의 유훈판결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조국방위전쟁참전렬사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고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주가 되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뜨거운 열의의 순간순간을 동지적사랑과 믿음, 참된 의리로 수놓아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을 더 쏟아부으려 하자.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과 위업,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도덕과 생활기풍도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판정을 지니야 한다.

강한 민족적자존심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려는 혁명적의지로 우리 나고고 우리 힘으로 세계를 압도하려는 배짱도 발휘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밑에 형성발전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더욱더 빛내어나갈 각오와 의지가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팍 차넘쳐야 한다. 빈번한 유유한 생활 찬란한 민족문화 꽃피워는 날마다 긍지와 자기의것에 대한 무한한 애착심을 지니고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말을 해도 평양문화라고 말하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에 맞게 부르며 어울림도 민족적 특성이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회주의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도덕교양을 사회주의적인간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꾸준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도덕적으로 건전한 인성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공원과 유원지에서 낮잠을 자거나 오물을 당량 버리고 구장, 영화관, 식당 등에서 비문화적으로 행동하는것과 같은 문명치 못한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넓고 뒤편어진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평양시민들이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청소년들에게 한 도덕교양을 특별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 세대들에게 혁명의 빛을 주어야 하는 임무가 크다. 일군들이 배의도덕을 잘 지켜야 일꾼의 권위도 서고 집단의 화목과 단합이 이룩될수 있으며 혁명대대의 일심단결도 강화되게 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선인, 인민의 총무관과 언제나 제일앞에 걸터앉아야 하며 군중과 기쁨도 아픔도 함께 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야 한다. 언어생활의 문화성을 높이고 어떤 특전, 특혜도 바라지 말아야 하며 힘든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일 생기면 아랫사람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하대하고 대중의 의의를 귀담으려 흐려보려는 관료주의적인 사대주의는 우리 시대 일군들의 품모와 인성이 아니다. 일군들은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현상들과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의 주인, 도덕생활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판정을 지니고 온갖 불건전한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을 지켜나가는데서 공민적의 마땅한 본분이고 인민에 대한 존중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누구나 도덕적 교양을 사회주의적인간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꾸준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도덕적으로 건전한 인성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공원과 유원지에서 낮잠을 자거나 오물을 당량 버리고 구장, 영화관, 식당 등에서 비문화적으로 행동하는것과 같은 문명치 못한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넓고 뒤편어진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평양시민들이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청소년들에게 한 도덕교양을 특별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 세대들에게 혁명의 빛을 주어야 하는 임무가 크다. 일군들이 배의도덕을 잘 지켜야 일꾼의 권위도 서고 집단의 화목과 단합이 이룩될수 있으며 혁명대대의 일심단결도 강화되게 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선인, 인민의 총무관과 언제나 제일앞에 걸터앉아야 하며 군중과 기쁨도 아픔도 함께 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야 한다. 언어생활의 문화성을 높이고 어떤 특전, 특혜도 바라지 말아야 하며 힘든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일 생기면 아랫사람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하대하고 대중의 의의를 귀담으려 흐려보려는 관료주의적인 사대주의는 우리 시대 일군들의 품모와 인성이 아니다. 일군들은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현상들과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의 주인, 도덕생활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판정을 지니고 온갖 불건전한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도덕을 지켜나가는데서 공민적의 마땅한 본분이고 인민에 대한 존중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누구나 도덕적 교양을 사회주의적인간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다양한

조선속도창조로 모든 부문에서 대박을!

## 쇠그물올라리생산 힘있게 추진

6 1 8 건설 돌격대 에서

고산과수농장에 새로 일떠선 쇠그물올라리공장에서 생산성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서관찰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6 1 8 건설돌격대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쇠그물올라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생산을 시작한 때로부터 보름 남짓한 기간에 여러 형태의 쇠그물올라리 4 0 0 0m, 각종 쇠그물올라리 기동 3 6 0 0여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고산과수농장에서 경영관리를 잘하자면 쇠그물올라리를 쳐야 합니다.》

지난 7월 고산과수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쇠그물올라리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하루

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시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올해안으로 100여km의 구간에 쇠그물올라리치를 끝낼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생산을 앞세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돌격대의 정치일군들이 생산자들에 들어가 당이 바라는것을 지면 후회로 화답하며 사회의일선전투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온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본받아 쇠그물올라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고 그들을 불리 일으켰다.

참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공장에 내로 생산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설비들의 만가뭇을 보강하기 위한 방도들을 찾았다. 그리고 공장이 갖 조업하여 생산을 시작한 조건에 맞게 일군들을 현지에서 자주내려보내어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게 하였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일부

공정들을 새로 보충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예비부속품들도 충분히 갖추어주었다.

이런 빈틈없는 조직정치사업에 기초하여 현장지휘부에서는 일일계획을 바로세우고 당면전 전투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생산자대중을 쇠그물올라리생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전투장마다에서 최첨단돌격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연일공정을 맡은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일수 있는 대책들도 세워나갔다. 결과 공구의 수명을 높이면서 철 생산성상화를 처음보다 1.3 배로 높였다.

우리 조국의 모든것을 세게도 무조건 해내야 할 각오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쇠그물올라리생산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영철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개조하여 기동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수지도조업반의 생산자들은 자체의 특산 수리기구를 꾸려놓고 자급자족체제를 철저히 세워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철선도덕의 질을 높이고있다. 제관용적업반의 생산자들이 맨손으로 트랙토르와 전기기판차를 만들어낸 전세대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서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원가를 줄이면서 생산성능을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들을 찾고 구부린 기동성에서 절단공정을 없애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생산시간을 줄이면서 더 많은 용접봉을 절약할수 있는 불과기를 열어나가고있다.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계획된 생산과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해내야 할 각오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쇠그물올라리생산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영철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태원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면서 연계조물보수와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7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기세로 높이 전력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발전소당위원회에서는 조선속도창조운동에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를 높이 받들고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발전소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군들은 발전설비들과

## 수평관압출프레스를 개발제작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평관압출프레스를 개발제작하였다.

컴퓨터로 조종하게 되어있는 이 수평관압출프레스는 각종 형태의 자를 만드는 여러가지 규격의 유색금속판을 압출하는 6MN유압프레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수용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기술과 열정을 총출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공들을 대놓음으로써 우리 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공학연구소에서는 지난 기간 수립에 의존하던 첨단기술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성상화를 실현하는 사업에 앞장섰다.

6MN수평관압출프레스는 설비, 자체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과학자들이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으로 우리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새로 개발한것이다.

우리 식의 수평관압출프레스가 도입되어 현장의 소재생산공정이 현대화됨으로써 위대한 공민들의 유훈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있는 수입산 수평관압출프레스의 대부분은 변형해서 좋은 알루미늄으로 된 유색금속형소재를 압출하는 프레스들이며 경질유색금속판 소재는 압출하지 못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경질유색금속판소재를 쓰는 현장에서 는 환봉소재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판소재를 생산하여 리용해왔다. 결과 소재생산에 자체와 로력이 많이 들고 생산량도 늘일수 없었다.

생산량 부피수 리량기동부만을 비롯한 기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이 수평관압출프레스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어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연구사업에 앞장섰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연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작에서도 수많은 애로와 난관이 겹쳐졌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현장동동계급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결사관철의 눈으로 수평관압출프레스개발을 다그쳐나갔다.

소장 교수 박사 최용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책임 조직사업에 앞장서고있는 연구진들과 유능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수평관압출프레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식으로 개발된 수평관압출프레스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개발은영되고있는 것과는 종류가 완전히 다른 말리 힘판이 오스들의 구조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기동이 예비용력구조로 제작된것으로 하여 프레스의 전체 질량이 작고 강성과 작업안정성면에서 훨씬 높을뿐 아니라 판압출공정을 컴퓨터로 자동감시조종할수 있게 되었다.

이 수평관압출프레스를 두랄루민판소재생산에 도입한 결과 금속성질을 종전의 방법에 비해 30%정도 높이고 로력을 60%나 절약하였으며 생산성은 2.5배나 높아지고 제품의 질도 훨씬 개선되었다고 한다.

우리 과학자들에 의하여 수평관압출프레스가 개발됨으로써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고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판압출프레스를 자체로 개발할수 있는 과학기술적근거와 경험이 축적되었다.

현대적인 수평관압출프레스의 개발성과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모든 정책적요구대로 건전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설비와 자체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확산시켰고 벌려나갈데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개발할수 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계설비의 국산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명희

발전기의 협력적인 부하운전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태원 4호정년발전소와 5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증정과 수문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수력구조물관리와 발전설비들에 대한 운전준을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계속 높이고있다.

발전소당위원회에서는 전력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발전소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혁신자속도모임의의있게 진행하면서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태원 3호정년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에 따르는

발전기의 협력적인 부하운전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태원 4호정년발전소와 5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증정과 수문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수력구조물관리와 발전설비들에 대한 운전준을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계속 높이고있다.

발전소당위원회에서는 전력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발전소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혁신자속도모임의의있게 진행하면서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태원 3호정년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에 따르는

발전기의 협력적인 부하운전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태원 4호정년발전소와 5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증정과 수문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수력구조물관리와 발전설비들에 대한 운전준을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계속 높이고있다.

발전소당위원회에서는 전력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발전소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혁신자속도모임의의있게 진행하면서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태원 3호정년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에 따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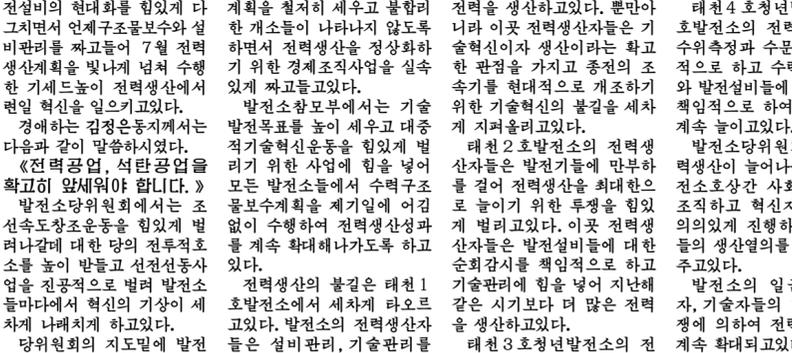
발전기의 협력적인 부하운전을 보장함으로써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있다.

태원 4호정년발전소와 5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증정과 수문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수력구조물관리와 발전설비들에 대한 운전준을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계속 높이고있다.

발전소당위원회에서는 전력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발전소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혁신자속도모임의의있게 진행하면서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태원 3호정년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수위에 따르는



### 선군혁명경도의 위대한 역사를 더듬어

# 세월과 더불어 이어진 선군령장의 뜨거운 사랑

## 한 바다가 초소에 잇든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주제 87(1998)년 3월 1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의 한 대령함부대편하 해안포중대를 시찰하시었다. 《로동신문》은 그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봉어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관들, 중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31년전 7월 24일 중대에 찾아오셨을 때 중대정지도원, 중대청년동맹 분초급단체위원장, 장이었던 진정규, 박병철동무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솜주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사업과 생활, 가정살림살이와 건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함께 부부하던 전우들의 안부도 물으시면서 흐르는 세월속에 몸은 비록 늙었어도 변함없는 병사의 자세로 군인교양에 이바지하고있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보논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안포중대를 찾으시어 어제날의 중대군인인 두 전사를 만나신데 대한 내용은 결코 않다. 그러나 그날의 상봉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경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1960년대에 한 바다가초소에서 병사들과 하루를 보내신 때로부터 이어오신 사랑과 그리움의 긴 세월이 깃들여있었다.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걸으신 전선길에 무수히 수놓아진 사랑의 이야기들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선 언제나 병사들의 환顔を 안으시고 육친의 정을 기울으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한평생이 어려웠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소중히 간직된 영원한 태양의 영상이 바껴있다. 그 이야기는 세월의 먼 기슭에서부터 시작된다.

### 47년전 여름날에

처절씩, 처절씩... 파도는 모래밭을 활으며 끊임없이 기슭을 오르내리고있었다. 누기를 머금은 해풍은 배사장을 거슬러 펄기나무숲을 조용히 흔들어주었다. 물결은 도래같이, 멀리 포구에서 배고동소리 유정하게 울려오는 바다가의 해안포전지... 주제 56(1967)년 7월 24일이었다. 조국방선의 이름없는 바다가초소에 력사에 길이 빛날 날이 도래하고있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혁명경도의 역사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해안포중대를 찾아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게시었던것이다. 굵이같이 뻗어간 도래같이결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대에 향하게시던 그해 초소에는 여느날과 다름없는 시간이 흐르고있었다. 병사마냥 나서면 출렁이는 파도, 미역내 싱그럽고 골짜기 양식공 처녀들의 노래소리 들려오는 바다가는 그야말로 환복의 그림이었다. 전자의 반짝이는 포신야래 언저드는 조국의 아름다움 바다풍경은 병사들로 하여금 저절로 붓을 들게 하였다. 하여 출렁이 끝난 후엔 중대군인들은 고기배들이 만진기를 날리며 들이치는 포구를 소묘하고도 하고 해안포병의 영예와 긍지를 자작시에 담기도 하였다. 그들속엔 빨간 명장도 노란 줄이 하나 건너간 나라인 병사도 있었다. 중대에서는 그를 생포내라고 불렀다. 고향이 신포내였다가 노도 잘 짓고 낚시질에도 능하였던 것이다. 《신포내기, 만약 중대의 폭배를 타고 낚시질을 한다면 한시간에 물고기기를 얼마나 잡을수 있소?》 구대원들이 이렇게 물으면 그는 자신있게 대답하곤 하였다. 《두 버치는 허양 잡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그러 웃음이 터지곤 하였다. 중대에 그런 생활의 판만이 넘치던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면에

한한 웃음을 담으시고 초소에 들어서시리라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인민군대를 무적필사의 혁명장군으로 굳건히 다져나가는 또 한명의 천출명장,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중대는 감격과 환희로 불도가나만방 뛰어내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드리는 중대지휘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동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보고싶어왔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뵈고싶던 일일천추의 소망을 풀게 된 해안포병들은 가슴을 세차게 들떠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신포내기병사의 기쁨은 비길데 없었다. 바다가 나가지어 철벽의 요새로 다져진 해안포전지의 위장상태를 보시기 위해 몸소 중대의 폭배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노를 짓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었던것이다. 그의 마음은 활활 하늘을 날았다. 비록 자기마한 매생이었지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니 배가 커다란 보란처럼 여겨졌다. 그는 전우들이 교환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힘차게 노를 저어갔다. 중대지휘관과 함께 폭배에 오르시어 잔뜩이 절한 배머리에 허물없이 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도에 기우뚱거리는 선체를 바로잡으며 안전하게 배를 모느라 애쓰는 젊은 병사를 미덥게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름이 무엇인가, 고향은 어디인가 살뜰히 물으시었다. 그 때마다 병사는 장군님의 친근하고 소탈하신 인품을 골뎠 활달하게 대답하였다. 능숙하게 노를 짓는 병사가 대견하시어 장군님께서 노트는 법은 언제 배웠는다고 물으시었을 때에는 사실은 노트는 법을 배우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스투름없이 말씀드리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말에

호랑하게 웃으시었다. 바다도 기쁨에 넘친듯 물결을 출렁이며 설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천천히 바다가슴을 따라 시선을 옮겨시었다. 《참 좋은 사회주의조국의 풍경입니다.》 갈매기들이 배머리를 스치며 춤추듯 날아왔다. 내륙에서는 트랙터들이 오고가고 공장들이 일떠서고... 이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내고... 유정하신 어조로 이렇게 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꼬뜩꼬뜩 찾았고 건설한 이 신성한 조국방어 원수들이 더러운 바닷물을 단 한수도 들이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동무들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해야 하며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31년이 지난 후에

세월은 류수와 같았다. 어제날 병사는 가는 해, 지는 달이 원망스러웠다. 그리움은 풀길 없는데 어느새 수십년이 흘러 머리엔 흰시리가 내리었다. 언제나 다시 되오라, 소름기 내배고 박막이 미끈거리기는 폭배에 허물없이 오르시었다 아버지 장군님. 총장은 가슴에 조국에의 참뜻을 심어주시던 거룩하신 그 모습은 꿈결에도 떠올랐다. 중대의 향식창고에 들리시어 식량과 부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서 어두컴컴한 저장고에도 들리시어 절친한 물고기들이 들어있는 독들의 뚜껑도 손수 차례차례 열어보신 다정한 사람, 휘사장을 찾으시어서는 설성 풀는 국가마루정도 열어보시고 병사들과 함께 점심식탁에 마주앉으시어 준비해가지고오신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저가락까지 취어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 이 동무들이 끓인 국을 들여오시오 라고 하시며 은 중대가 먹는 한가마속의 국을 같이 드시면서 하시던 말씀을 순간이라도 잊어본적 있었는가. 《구수하구만! 국맛이 썩 좋습디다.》 어느 날이면 그 정다운 음성 또 들고 인자하신 모습 다시 떠올라! 피끓던 흥안의 시절은 멀리 갔어도 오는 세월도, 가는 세월도 소중한 추억은 지우지 못했고 간절히 그리움에 이끼를 덮지 못하였다. 하나 그가 어제 알았겠는가. 긴긴 30여년 그 세월을 아버지장군님께서 더 절절한 그리움속에 보내고 계시는줄을. 옛책은 부모를 간직해 가리키는 자식의 심정에 감복하여 기러기가 바다를 날아오며 그 마음을 전하듯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간에 바다가

없었습니다. 병사의 심장은 널뛰듯 하였다. 한없이 깊은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침이 자자구구 가슴을 파고들었고 자기 손을 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이 온몸을 후듬게 닿구었다. 그럴수록 눈길이 배에 실린 낚시대로 향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다에 나가시는 기회에 곁잡힌 피로를 잠시나마 푸시기를 위하여 수행원들이 배전에 놓아드린 그 낚시대를 그이께서 어서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잔물결이라도 일세라 삼가 노를 저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잡시의 낚시질도 병사들을 위해 하시었다. 그날이 낚시대를 낚으실 때마다 전사들의 식탁에 생선국을 놓아주시는 생각으로 미소를 짓곤 하시었다. 병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다속을 환히 들여다보시는듯 물고기를 속속 낚아내시는것을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수수하여도 명중낚시만 드리우는 낚시대는 불수속 신기하게 안겨왔다. 하지만 그때 병사는 미처 느끼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낚시대대 좌주 시선을 던지는 자기의 호기심어린 눈빛을 조용히 읽고계시는 정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다고 할수

### 31년이 지난 후에

초소에서 평양으로 기러기는 날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슬허의 전사들의 애절한 심정을 우리 장군님께서 어이 헤아리지 못하시라. 불내한 집무, 끊임없는 현지지도, 불철주야의 로고... 년대와 년대를 이어 조국과 혁명을 이끄시는 거창하고 분명한 사업속에서도 장군님께서 오매전엔 만나보신 해안포병들의 모습을 언제나 그이 안고계시었다. 그들이 모두 잘 있는지? 노를 짓는 낚시사는 지어 어떻게 지내는지? 그때의 중대정치지도원은 아직도 군복을 입고있는지?... 바다가초소에서 보내신 하루가 떠 오르실 때마다 낚시대에 자주 시선을 던지던 병사의 눈빛이 가슴에 맺히시었고 그에게 좋은 낚시대를 마련해주고 오지 못한 아쉬움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하여 어느날에는 일군들에게 물기도 하시었다. 그 병사의 이름이 박병철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 아버지 장군님께서 그 기억이 군복을 입고있으며 최고사령관동지를 바다가초소에 다시 모시고싶어 자내께나 기다린다는 보고를 받으시었고는 더더욱 그리움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웬슬니까, 꼭 가보겠습니다.》 이러시며 해풍에 얼굴이 새까맣게 됐던 그가 보고싶어서라도 꼭 가보시겠다고 하시는 그이의 음성은 못내 젖어있었다. 한때 품으신 정 장장세월에도 고이 간직하시어는, 사랑이런 불같은 것을 주시고 인연이면 혈연을 돌리시어는, 그가 누구이든 일단

믿으시면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때없이 갈마드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아버지장군님께서 마침내 바다가초소를 찾아 먼길을 떠나시었다. 처음 다녀오신 때로부터 서른한해만인 주제 87(1998)년, 산과 들에 바야흐로 봄빛이 깃드는 3월이었다. 차에 오르시며 이번 전선시찰 기회에 수심년전에 들렀던 해안포중대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안방에는 그리움이 어서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잔물결이라도 일세라 삼가 노를 저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잡시의 낚시질도 병사들을 위해 하시었다. 그날이 낚시대를 낚으실 때마다 전사들의 식탁에 생선국을 놓아주시는 생각으로 미소를 짓곤 하시었다. 병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다속을 환히 들여다보시는듯 물고기를 속속 낚아내시는것을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수수하여도 명중낚시만 드리우는 낚시대는 불수속 신기하게 안겨왔다. 하지만 그때 병사는 미처 느끼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낚시대대 좌주 시선을 던지는 자기의 호기심어린 눈빛을 조용히 읽고계시는 정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다고 할수

《그해 다들 잘 있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 뵈고싶었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서론해 넘도록 애라게 기다려온 아버지장군님의 손을 잡은채 두 전사는 어린애들처럼 흐느끼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목이 메여오르시는듯 아무 말씀없이 머리가 희끗해진 어제날 중대정치지도원의 모색을 추원한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그사이 많이 늙었구만 하시는 장군님의 안색은 저어 흐르었다. 막을수 없는 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소급할수 없는 것이 인생이건만 오랜 나날 심중에 고스란히 간직해오신 전사들의 젊은 모습이 그리우시어 장군님께서는 어조는 애뜻하시었다. 《나는 31년전에 만났던 해안포병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끝결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차장밖으로는 낮익은 산안이 흘러가고 차안에서는 낚시대들이 반짝거리고있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그윽한 눈길로 파도가 철썩이는 해변가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날 노를 짓던 상등병 동무가 낚시질을 하고싶어 나의 낚시대를 부러온 눈길로 바라보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에게 좋은 낚시대를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고 온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엔 낚시도구를 가져다줍시다. 승용차는 세월의 먼 기슭이 불러 일으키는 가지가지 추억을 싣고 해안포중대로 달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 전방사업을 하고시며 매일 방대한 집무를 감당해내시는 매우 바쁘신 속에서도 이처럼 수심년전에 있었던 일들과 그 과정의 한계 세부까지도 기억하시는데 어찌 절세영인의 출중함으로만 설명할수 있으리까. 그것은 다름아닌 애병애민의 열화같은 세계, 믿음과 정으로 끓는 친아버지의 심장에 서기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한없는 정과 미더움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상등병 동무가 이제 는 나이도 많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서있으니 얼마나 장오호. 그리움 모습들을 찾아 세월의 언덕을 넘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시었다. 31년전 그날의 바다가초소때를 다시 지내시어 마침내 해안포중대에 이르시었을 때에는 빨라지시는 걸음을 다잡지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영접하여 최고의대원함부대 지휘관들속에서 열일것 뒤쳐나오는 어제날의 병사와 중대정치지도원, 하영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옷자락을 적시며 삼가 인사를 드리는 그들을 알아보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해풍의 정을 언척하지 못하시었다. 《어찌 얼마만이었.》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걱정을 터치시며 그들의 등을 어루만지시었다.

전주보석을 다 쌓아놓는다 한들 그보다 값지고 소중한것인가! 바이 가실수가 없으시어 기나긴 세월 안고계시었던 아쉬움을 마침내 푸시게 되신것이 기쁘시어 아버지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었다. 하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과 은정에 전사는 어깨를 펴며 눈물을 뿌리었다. 《제가,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옛 병사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었다. 《됐습니다. 이 기쁜 날에 즐기는 왜 읊니까. 나는 동무가 건강하여 군사복무를 오래도록 잘해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눈가에 도 뜨거웠음이 고여있다. 박병철동무는 축복의 낚시대들을 그려안으며 아버지장군님품에 얼굴을 묻었다. 《장군님!-》 \* \* \* 철썩, 처절씩... 바다도 한껏 달아오른듯 기슭을 급하게 치고친다. 세월을 이어, 그리움을 이어 쫓겨난 송고한 사랑을 온 세상에 실어가려는듯 파도는 멀리로 밀려가고있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수심년전 병사들과 잊지 못할 생활의 한토막을 날기신 중대의 곳곳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보시었다. 중대군인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이 끓인 국맛도 보아주고 점심식사도 같이하던 일이 생강난다고 하시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걸음을 쉬어 매지 못하시었다. 이윽고 아버지장군님께서 두 전사를 물가까지 부르시었다. 내걸어와 서서 사진을 찍으시라 하시며 잊지 못할 그날의 해안포병들모두와 함께 찍으시는 심정으로 두 전사를 곁에 세우시고 사진기앞에 서시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아버지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이르시었다. 《대가 가지고온 낚시대를 가져오시오.》 대원함부대 지휘관들은 물론 어제날 병사도 영문을 몰라하였다. 그러는 모습들을 지켜보던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옛 병사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자신께서 중대에 처음 왔을 때 이 동무가 노를 저으면서 폭배에 실었던 낚시대를 부러온 눈길로 자주 바라보더라고 사연을 말씀하시었다. 《대 그대서 오늘 낚시대를 가지고왔습니까.》 그러시고는 동무에게 몇해전부터 낚시대를 가져다주려고 하였는데 시간을 내지 못하고있다고 오늘에야 가져왔다고, 동무와 30여년만에 다시 만난것을 기념으로 낚시대를 선물로 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아, 아버지장군님께서 수백리길 안고 오신 두조의 낚시대! 위대한 아버지께서 수심년세월 품고계신 그리움과 대대같은 사랑이 실린 그 낚시대들의 무게를 이 세상 바다가 다 합쳐진들 어이 감당할수 있으리까, 5대양 6대주의 금은보화와

##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화환 진정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현선생님의 탄생 143돐에 즈음하여 19일 만경대에 있는 선생님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묘에 놓여있었다. 김보현선생님의 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양형섭동지, 강

석주동지와 리철만대각부총리, 당,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이어 성, 중앙기관, 혁명학원, 평양시내 당, 정전기관,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일가분들을 추모하는 뜻을 나타내며,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이어 성, 중앙기관, 혁명학원, 평양시내 당, 정전기관, 농장의 명의로

## 슬직하여 줄다시며

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크나큰 감동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 어인 일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쓰던것을 그대내 놓았다고 오히려 치하하시는것이였다. 《바다사람들이 슬직하여 줄 습니다.》 실로 뜻밖의 말씀이었다. 군부대일군들은 젖은 수건들

게 정돈되어있는 세면도구들... 그런데 수건결에는 땀수마찰을 했는지 세면수건들이 젖은 채로 걸려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수건들을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순간 군부대 일군들은 장군님께 수건들을 보여드리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

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크나큰 감동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 어인 일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쓰던것을 그대내 놓았다고 오히려 치하하시는것이였다. 《바다사람들이 슬직하여 줄 습니다.》 실로 뜻밖의 말씀이었다. 군부대일군들은 젖은 수건들

## 오성산아, 이야기 하라!

구름에 싸인 높은 평릉, 칼바람 아슬슬 그험한 산악 하늘가에만 솟아있었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솟아있고 찬란한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솟아있는 오성산! 그 이름 한평생 총대를 역세게 틀어쥐신 위대한 평양의 력사에 선군의 산악으로 빛을 뿌린다. 그 모습 강성부흥의 성새로 조국청사에 आरो새겨져있다. 우리 장군님 비오나 눈오나 오르고 낮에도 밤에도 넘으신 자욱 백년두굴이 령길에 천리, 만리를 이루고있다. 말하라, 오성산아, 우리 장군님 지켜내리는 야전차를 몸소 미시며 칼바람길 뚫으시었던 16년전 8월의 그날을. 어쩌하여 우리 장군님 것처럼 사생결단 전선길 걸으시었고 폭압에 꿇기법을 이기고 이시며 비바람, 눈비를 헤치시었던가. 정령 너의 메부리는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는 위대한 선군평양의 신념과 의지로 승업하고 거룩하다. 이렇한 버랑길 한치한치도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하신 그 말씀 새겨주어 더욱 눈물겹다. 오성산아, 너를 못 잊으리라. 어디서나 오르고 언제나 오르리라. 우리의 사회주의 고수하시고 만대의 행복 지켜내시었으며 인민이 발전잡을 자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승배인 산, 선군의 산악 오성산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일



#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농민의 영예를 떨치리

##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수확의 계절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논물을 메고 가을걷이하는 마지막영농공작까지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 말고 과학기술적으로구대려 내밀어야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

얼마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농업성 일꾼들, 농업과학원 실장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앞으로 예정되는 날씨와 현재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알고싶다.

농업성 부국장 김창길: 기상수문국의 통계에 의하면 8월 중순과 하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남쪽저기압과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보고있다. 평균기온은 8월 하순에 전반적지방에서 18.6~24.3℃로서 평년보다 0.3~1.2℃ 높고 지난해에 비하여 평안북도, 북부내륙지방, 동해안지방에서 0.4~1.8℃ 높으며 그밖의 지방에서 0.5~1.2℃ 낮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 기간의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30~162mm로서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평년보다 12~27mm 많고 그밖의 지방에서 평년정도일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지난

### 농업부문 일꾼들, 과학자들과 나눈 이야기

해에 비하여 함경남도에서 13mm정도 적고 그밖의 지방에서는 1~87mm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전반적지방에서 현재 논벼는 이삭이 패어 물알드는 시기에 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평지대대에서 늦게, 중간농장농민은 물알이 들거나 익는 시기에 있다.

기자: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논벼비배관리를 기술적으로구대려 하여 여름물을 높이고 천일질량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과학원 실장 함대선: 올은 말이다. 지금부터 가을걷이할 때까지의 논벼비배관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올해 농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것은 이때가 바로 논벼여물을 높이고 천일질량을 높일수 있는 시기이기때문이다.

올해 봄철에 이어 여름철에도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논벼생육이 앞당겨져 8월 상, 중순에 이삭패기와 물알들이 시작되었다. 이런 조건에 맞게 여름물을 높이고 천일질량을 높일수 있도록 논벼비배관리를 잘하는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삭패는 시기 논벼의 생리특성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논벼의 생육기간에 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감수분열기부터 이삭패는 시기까지

은 2~3일 또는 4~5일정도로 모를 길러 심는것이 좋다. 그리고 잡초는 기간과 자라는 기간이 짧은 품종들을 선택워 작파하는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심기를 끝내야 하며 8월말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4~5일정도 모를 길러 심어야 한다.

기자: 현재 강냉이 이삭들이 여름이거는데 강냉이농사에서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다.

농업과학원 실장 김양일: 이삭패는 시기 벼의 이삭을 고려하여 영양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비배관리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삭패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삭이 떨어지 전후에서 2% 노소액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산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산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산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은 2~3일 또는 4~5일정도로 모를 길러 심는것이 좋다. 그리고 잡초는 기간과 자라는 기간이 짧은 품종들을 선택워 작파하는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심기를 끝내야 하며 8월말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4~5일정도 모를 길러 심어야 한다.

기자: 현재 강냉이 이삭들이 여름이거는데 강냉이농사에서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다.

농업과학원 실장 마봉수: 원 그루강냉이포전에서 습해와 비배관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계속 세우는것과 함께 남새와 노소액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산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우들을 잘 갖추어놓는것이 중요하다. 남알탈기를 와다닥 끝내고 알곡손실을 극력 줄일수 있도록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올해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평지대대에서 벼알이 쉽게 떨어지는 품종을 많이 면적에 심은 조건에서 이동식탈곡기로 포전에서 남알탈기를 하면 벼알이 떨어지는 손실을 훨씬 줄일수 있다.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낫, 솥, 삼태기 등 필요한 중순농기구들의 수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모지라는것을 보장하고 불비한것은 수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장들에서는 운반속도이자 가을걷이속도를 높일수 있도록 운반수단의 점검을 능력에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포전길도 번듯하게 닦아놓아야 한다.

기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마지막영농공작까지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간지하게 해 나갈 때 정보당 수확고가 높아져 나라밖으로 가득 채워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국장 김창길: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마지막영농공작까지 적기에 철적으로 끝낼수 있게 사회주의 농촌경제발표 5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농민의 영예를 떨쳐야 한다.

본사기자 황연옥

##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에서 논벼천일질량을 높일수 있는모리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공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의 일꾼들은 8월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마지막논벼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만 같았다. 이 과정에 어떤 사실에 주목을 두리게 되었다.

지난해 이 포전에서는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노소액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산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공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의 일꾼들은 8월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마지막논벼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만 같았다. 이 과정에 어떤 사실에 주목을 두리게 되었다.

지난해 이 포전에서는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노소액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산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공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의 일꾼들은 8월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마지막논벼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만 같았다. 이 과정에 어떤 사실에 주목을 두리게 되었다.

지난해 이 포전에서는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노소액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비료, 나노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산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비료합성화합물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 백암군 상담농장에서 천연생물활성제를 적극 리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을 중시하고 감자농사를 과학화하는데 감자생산을 빨리 늘리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감자수확을 높이는 좋은 영농방법이다.

여기로부터 백암군 상담농장의 일꾼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꽃망울따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농작업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우선 일꾼들은 지난 시기 꽃망울따주기를 잘하여 성과를 거둔 제1, 2작업반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지난 시기 감자포기들에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하면 따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한편 작업반기술원들은 포전을 돌아보면서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한가지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꽃망울을 따지지 않은 포전에 비해 감자알들이 류달리 큰것이였다. 감자알들이 잘 여물것은 물론 꽃망울을 따지지 않았을 때보다 정보당 수확이 5~10%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벼이삭의 여물을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백천군 일꾼들은 벼이삭의 여물을 높이는천연생물활성제를 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삭이 패고 수정되어 여는 시기에 비배관이 자주 불고 해비침들이 낮으며 때때로 고온현상도 나타나는것은 문제이지만 기본은 전반적인농장들에서 이활성제를 농사에 처음 리용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군일꾼들은 지난해 천연생물활성제를 써서 알곡생산을 늘린 조국협동농장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해 이 농장에서는 600L의 물에 이활성제 1kg을 푼다음 벼이삭이 나오기 전에 3회 시비한데 그치지 않고 수정되어여는 시기에 2회 분무하였다. 한편 작업반기술원들은 포전들을 매일 돌아보면서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한가지 사실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이었지만 벼이삭이 류달리 싹났다는것이였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벼이삭의 여물을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백천군 일꾼들은 벼이삭의 여물을 높이는천연생물활성제를 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삭이 패고 수정되어 여는 시기에 비배관이 자주 불고 해비침들이 낮으며 때때로 고온현상도 나타나는것은 문제이지만 기본은 전반적인농장들에서 이활성제를 농사에 처음 리용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군일꾼들은 지난해 천연생물활성제를 써서 알곡생산을 늘린 조국협동농장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해 이 농장에서는 600L의 물에 이활성제 1kg을 푼다음 벼이삭이 나오기 전에 3회 시비한데 그치지 않고 수정되어여는 시기에 2회 분무하였다. 한편 작업반기술원들은 포전들을 매일 돌아보면서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한가지 사실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이었지만 벼이삭이 류달리 싹났다는것이였다.

## 효과적인 흰잎마름병예방대책 동림군 통산협동농장에서

동림군 통산협동농장에서 지난해의 논벼농사경험을 통하여 흰잎마름병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막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흰잎마름병에 걸린 포전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은 포전에서보다 정보당 수확이 1~2이루 떨어졌다.

여기로부터 농장에서는 흰잎마름병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병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소독제를 정보당 300kg 쳤다.

그리하여 비배관에 의하여 넘어지는것을 막고 상처도 적게 입어 이병에 대한 견딜힘이 세지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물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이 병을 막기 위해 고인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고 논물관리를 포수행, 간판물대기방법으로 진행한 결과도 좋았다.

농장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 올해에 들어와 흰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김강철

동림군 통산협동농장에서 지난해의 논벼농사경험을 통하여 흰잎마름병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막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흰잎마름병에 걸린 포전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은 포전에서보다 정보당 수확이 1~2이루 떨어졌다.

여기로부터 농장에서는 흰잎마름병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병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소독제를 정보당 300kg 쳤다.

그리하여 비배관에 의하여 넘어지는것을 막고 상처도 적게 입어 이병에 대한 견딜힘이 세지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물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이 병을 막기 위해 고인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고 논물관리를 포수행, 간판물대기방법으로 진행한 결과도 좋았다.

농장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 올해에 들어와 흰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김강철

동림군 통산협동농장에서 지난해의 논벼농사경험을 통하여 흰잎마름병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막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흰잎마름병에 걸린 포전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은 포전에서보다 정보당 수확이 1~2이루 떨어졌다.

여기로부터 농장에서는 흰잎마름병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병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소독제를 정보당 300kg 쳤다.

그리하여 비배관에 의하여 넘어지는것을 막고 상처도 적게 입어 이병에 대한 견딜힘이 세지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물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이 병을 막기 위해 고인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고 논물관리를 포수행, 간판물대기방법으로 진행한 결과도 좋았다.

농장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 올해에 들어와 흰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김강철

## 선군으로 안아온 내 조국의 밝은 미래

가없이 푸른 내 조국의 하늘을 배경으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구호가 밝게 빛났다. 아이들의 호령, 아이들의 굳건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 기쁨과 환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녕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진 행복이던가.

지금도 눈곱만큼도 안겨온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선군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띠어다시는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이!

조국의 밝은 미래와 후대들의 웃음을 송대하듯 지켜주어야 한다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요 의지였다. 하기에 오늘날 최고인민회의가슴마디에는 장군님은 전진하는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와 더불어 오성산의 갈바람길, 파도세찬 초도의 배길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그렇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가 있어 이 땅에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화원이 활짝 꽃피고 장군님의 높은 뜻을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어버이들이 있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토록 밝은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은성 길이 전하며 아이들이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어라, 선군조선의 미래는 영원히 너희들의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 우리 군대가 높이 추켜든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깃든 명절로 아로새겨진 선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온 나라에 깔렸던 환희와 기쁨이 차넘친다.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용령장군 105명사단에 영도의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날인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이날과 더불어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편찬되는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의 역사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승리와 영광의 길을 아로새겼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조국과 혁명의 영적중추를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오며 당과 혁명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왔습디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을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보시고 우리 군대를 당의 위업에 풀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워 우리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반제국주의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수순한 아전복차림으로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하여 인민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으며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

##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역세게 자라났다.

조국의 초소와 고지들마다에 《결사옹위!》의 합성이 차넘치고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든 서슴없이 뛰어들어 해내고야마는 결사판혈의 정신이 세차게 나뉘었다. 신념도 배짱도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우리 군인들의 혼연장마에 백두산혼련열풍이 새차게 휘몰아치고 군인들모두가 적들이 감히 덤벼들면 단번에 쳐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펠렐 나는 싸움꾼으로 준비되었다.

그 나날에 얼마나 많은 평범한 전사들이 영웅으로 자라나고 당과 수령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값있고 빛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김영조, 김광철, 리철민...  
라테지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우리 혁명의 단련제보인 혁명적주요원들을 한몸바쳐 구원한 무제봉의 17명 영웅들과 당면대해우에 김일성민족의 승고한 인생관을 아로새긴 영웅전사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되었다.

조국방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

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적 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인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들어있다.

온 세상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서해갑문이 건설되던 나날에 육중한 합형부재를 바다에 가라앉히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모든 준비를 갖춘 끝에 시계를 돌려다보던 돌격대장이 구령을 내리었다.

《폭파준비!》  
두명의 폭파수가 각기 합형부재의 결핵부에 설치한 장악에 스프링을 넣어 폭파해야 했다. 폭파수들은 합창하여 대담했다.

《폭파준비 끝!》  
《폭파!》  
폭파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한쪽 30m구간에서만 폭파가 진행되었고 다른 한쪽구간은 잠잠했다. 합형부재가 부딪칠 때선이 끊어져 나갔던 것이다. 한지휘관이 뛰어들었다. 4m이상이나 선이 모자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없었다.

그는 끊어진 전기선을 한쪽손에 움켜쥐었다.

(내모도 전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의 한몸으로써는 4m가 넘게 모자라는 선을 이을 수 없었다. 그는 웨쳤다.

《누가 내손을 잡겠소?!》  
그의 웨치는 절망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전기선을 잇자는

뜻임을 군인들은 깨달았다.

분대장이 먼저 뛰어들어 지휘관의 한쪽손을 붙여잡고 늘어선 자 또한 군인이 나는듯이 뛰어 들어갔다. 그들은 한순간에 손에 손을 맞잡고 활개를 벌여 공간이 생긴 전기선을 이었다. 그리고는 웨치는것이였다.

《어서 스위치를...》  
사람들이 설레고 폭파수는 눈물을 땀주었다. 돌격대장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고였다.

《돌격대장동지, 구령을 치십시오!》  
군인들이 재촉했다. 지휘관은 목메인 소리로 구령을 쳤다.

《폭파!》  
순간 세명의 전사들의 몸으로 전류가 번개처럼 흘렀다. 또한 그순간에 폭파소리가 메아리쳤다.

전사들이 뛰어 들어가 자기의 몸으로 전기선을 대신한 동지들을 붙안아내었을 때 그들은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정녕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자기의 한몸속 서슴없이 바쳐 관철한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처럼 투쟁하는 동지들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민족특대의 국장을 당해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던 주제 83(1994)년, 그해 11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동굴을 건설할 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 《병사는 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들네》, 《먼저 찾아오, 《달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아요》 등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우리 군대의 고상한 품포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땀 앞장에서 받들어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업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승고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전사들이 바로 우리의 인민군인들이다.

원수격멸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며 혼련장에 나서면 명사수, 명포수의 자랑머치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의 조국은 금성처럼이다. 인민의 고귀한 재부를 마련한다는 긍지를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는 군인들의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또 얼마인가.

마시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앞으로 우리의 흥대는 영원히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혁명의 지평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승고한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현 경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수도시민들은 미제와 온갖 원수들의 악랄한 핵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전쟁전야의 침에한 정세가 조성된 때에 원수격멸의 전초선을 지켜야 할 인민군인들이 합창강과 보통강정리공사장, 공원들에 달려나와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아로새기고 전투현장에 달려나온 인민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합창강정리공사가 시작된 첫날에 벌써 강사처리가 결반제선으로 육박하였고 48시간만에 수문, 다리들의 감량을 피하고 2만㎡의 용벽보수와 셋어내기, 수심 1만㎡의 지대정리, 잔디기둥 등 공사과제를 완전히 끝냈다.

인민군인들은 편이여 보통강 정리에투여 달라붙었다. 보통강 바닥파기와 호안공사의 규모와 공사량은 엄청났다. 하지만 인민군인들에게는 정령 못할 요소가 없었다. 감량파기와 운반, 대

삼별주변정리작업들을 립체전, 설별전의 방법으로 동시에 해체할 대담하고 특이 큰 작전을 펼친 인민군인들은 전투에 진입한지 하루만에 수심만㎡의 감량을 외달단 피냈으며 6일째 되는 날에는 감량파기와 운반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인민군인들의 힘찬 투쟁으로 9만㎡의 지대정리가 끝나고 수천㎡의 면적이 잔디가 새로 심어져 단 9일만에 보통강수변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과 위대한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마음을 따라세우며 또다시 평양시내 곳곳으로 달려간 인민군정병들은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원들을 새롭게 꾸리었다. 공원들과 아름다운 꽃지가 생겨나고 배구장, 풍구장, 바드민턴장과 로스토크스대장들이 꾸려졌으며 각종 유희 및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었다.

그나날 평양시의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에서 수도시민들이 받아안은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원수들의 무분별한 핵전쟁소동으로 이 땅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아글라를 애쓰는 이연군대가 있어 내 조국이 끄떡없으며 인민의 행복의 터전은 영원하다는 굳건한 믿음이였다.

본사기자 리 건 일

##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 새겨진 위훈의 자욱

혁명의적군인정신이 낳은 창조물

선군혁명의 기상을 떨치며 자라높이 솟아 빛나는 안변청년발전소는 당과 수령의 무릎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이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방침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건설에 떨치신 인민군인들은 120여

개의 불타구간이 앞을 막아내고 석속에서 쏟아져 흐리려 넘는 물속에서 일당백공격정신으로 치열한 전투를 중단없이 벌려 3개 구간의 10여개 리를 뚫어내는 대형물길굴공사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공사 전기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 밑에 자연의 횡포를 완강하게 이겨내며 공사를 다그친 군인들의 혁명적기상으로 하여 건설은 밤낮으로 불도나기마냥 뛰어 번졌다. 실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전투에서 발휘한 인민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오늘도 사회주의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 조국땅 그 어디에나

판들은 유치원보수에 필요한 세멘트와 모래 등 건설용재들을 마련할수 있게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적극 때밀어주었던 병사들을 유치원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리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수질이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을 파고 아이들도 뜨뜻한 방에서 지낼수 있게 온돌도 새로 놓아주며 유치원마당을 더 넓고 번듯하게 꾸어주는 등 인민군인들이 기울인 정성은 그야말로 천후용, 천형용의 정교대로였다. 하기에 군인들의 헌신에 의해 물라보게 변모된 유치원을

보면서 농장의 일꾼들과 교양원들, 학부형들은 우리 군대가 계 이라고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런 아름다운 소행이 어찌이 유치원에서만 꽃피는 이야기라.

수많은 도시와 마을들에 《군민다려》가 솟아나 인민에 대한

본사기자 리 남 호

최현발전소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며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인 군민대결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은 최현발전소건설에서 제일 먼저 통림연계건설을 700여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전천-통림연계도로포장공사와 통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현돌격대, 대단한 부대로 내세워주신 근위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물길굴착 및 복구공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였으며 최현1호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운 영다리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금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얼굴마다에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금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얼굴마다에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자랑스러운 재부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는 기념비적창조물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 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승고

장, 육류양돈병원과 류경구장병원,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 세움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훈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스웨리에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민주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9일 니콜라스 스반스트립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에

우리 나라 박정주수수 제2차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제2차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가 16일부러 중국의 남경에서 진행되고있다.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20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박정주수수는 18일에 있는 남자력기 62kg급

경모의 정 표시

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별명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하야 합니다.》

체육기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 생산단위에 공급하는 것이 임무인 이 단위에서 질 좋은 체육기재를 만들어내게 된

## 스스로 걷는 길

체육기재생산관리국 아래단위 일꾼들과 종업원들

메는 사연이 있다. 지난해 주위의 어느 한 청소년체육학교를 찾은 기회에 학교에서 리용하는 축구공, 배구공실재를 구체적으로 로해해본 소장 최정춘동무는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무슨 말을 할까 하고는

(지금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고있다. 축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체육기재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최정춘동무에게 좀 힘들더라는 다른 나라의것에 못지 않는 공을 자체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그의 말에 종업원모두가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지

본사기자

##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 폐막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각지의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대회에서는 국방체육과 축구, 풍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시상을 받들고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편마하여 온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주의 정신을 경기마다에 남김없이

각 1등을 하였다.

전문학교국방체육에서는 라선상업전문학교(남자), 중앙관리학원(여자) 선수들이, 풍구 경기에서는 중앙관리학원(남자), 평양총계전문학교(여자) 선수들이 1등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메막식이 19일 함흥에서 있었다.

메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금,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포조국방문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진명



# 조미대결전에서의 법칙적인 두 전통은 영원히 흐를것이다

## 승리는 우리의 전통, 패배는 미국의 전통

조미대결력사는 수십년에 달한다. 세계는 미국이 시간적으로 제일 오래 하고 있는 전쟁은 조선전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조미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상태에 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대결해온 이 역사적 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되어온 법칙적인 두 전통이 있다. 하나는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마다 참패만을 당해온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다.

이 두 전통은 그 어떤 모략선전으로도, 광범위한 압박운동으로도 뒤바꿀수 없다.

이번 7.27에 즈음하여 미국은 명분도 뚜렷하지 못한 오바마의 《포고문》으로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배를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피한 판매놀음을 벌여놓았다. 오바마는 그 《포고문》에서 역사적사실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이날에 또한 미국과 남조선피괴정권의 고위인물로 저처하는 어중이떠중이 300여명이 워싱턴교외에 있는 알링턴국립묘지리라는데 찾아가 조선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 미군장병들을 《추모》하는 놀음을 펼쳐놓았다. 《자유와 번영》을 지켜낸 《결의》를 패배를 투수기어 버렸다고 한다.

어찌구무가 되었는 미국과 남조선 피괴들의 어용나팔수들이 오바마의 《포고문》내용을 빌어 6.25전쟁은 《잊혀진 전통》이 아니라 《번영을 안아온 승리》라는것이 《역사평가》라느니 뉘나 하며 황당환 날발을 계속 늘어대고있는 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삶은 소가 우다가 꾸메 미터질노릇이라고 한다.

미국은 《그것말도 백번 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파시즘광신자들의 교리를 그대로 본따 허위모략선전을 벌이며 저들이 당한 패배를 《승전》으로 뒤바꿀수 있다고 타산한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천박하고 유치한 사고이다.

오바마정권이 아무리 발악해도 역사적으로 뒤통을 맞고 녹아나기만 한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 비대한 힘을 믿고 실체대는 미국을 결코마다 통째로 죽여대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말할수 없다. 왜냐하면 결코 고칠수도 수정수도 지어낼수도 없는것이 력사이기때문이다.

이 두 전통은 바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뿌리를 두고있다.

미지배층이 조선전쟁을 《잊혀진 전통》이라고 떠들어댄것은 결코 전쟁일이 짧거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들의 참패상이 비격와 매우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미국의 출판보도, 영화부분은 조선전쟁을 잊지 않고있었으며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수많은 위급하였다.

1959년에 만들어진 《승리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을 단 미국의 어느 한 작품에도 바로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군이 술한 사망자를 낸 사실을 반영하였다. 작품은 미국잡지 《타임》이 미군이 조선전쟁에서 얻어맞고 퇴각하는것을 놓고 《최악의 패배》라고 전하였다는 자료와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자기의 일기에 제3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있는 상태였다고 썼다는 자료도 다 공개하였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한 작품에도 이렇게 띄어놓았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전쟁협정이 조인되었지만 조선은 3년전의 전경과 같았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군이 술한 사망자를 낸 사실은 반영된 바가 없었다. 미국은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의 출판보도, 영화부분이 잊지 않고있는 조선전쟁을 정객들이 잊고있는것은 남의 집을 털다가 주인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강도가 자기 범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겨대는 것과 같은 치졸한것이다. 수치와 두려움의 발로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나라 맞선 적수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하다고 하는 미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우리 인민앞에 굴복하여 정전협정문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 조선전쟁이후 조미대결전에서도 우리는 항상 승리하였고 미국은 련속 패배하였다.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꾀임없이 감행하면서 기회를 노리던 미제는 1960년대에 무장간첩 《후에블로》호, 《EC-121》대형간첩비행기를 련속 우리의 영해, 영공에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범죄적 침략활동을 미쳐 날뛰었다. 하지만 《후에블로》호는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나포되었고 《EC-121》대형간첩비행기는 고공에서 격추되었다. 미국은 그때마다 도적이 매를 쓰는 격으로 보복을 운운하며 당장 전쟁을 일으키려하며 날뛰었지만 종당에는 사죄하거나 제물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1970년대 판문점사건때도 사건책임은 우리에게 몽땅 넘겨주고 전쟁도발음모를 실행하려다가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부딪쳐 참패를 당하고말았다.

1980년대에도 미국은 도발적인 핵전쟁소동을 계속 벌이면서 북침작위를 마련하려고 미쳐날뛰었으나 그것 역시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1990년대에는 우리의 《핵문제》를 결코 전쟁소동을 일으켰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로 대답하자 기절초풍한 미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건제시본 합의문을 서명하고 위대한 강군집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는 미국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전례없는 담보서한을 올렸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행정부는 수많은 바버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대시정책이 달라진적은 없다. 미국의 대조선대시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공통적인것은 어느 행정부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선제타격하려 한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조선전쟁시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우리 나라와 중국동북지방에 30-50개의 원자탄을 투하할 작전을 세차례나 검토하였다고 한다.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를 이어오며 미국의 집권자들은 제2조선전쟁이 터지는 경우 핵폭탄즉시사용을 22차례나 검토 추진하여왔으며 90년대와 현재기 첫 10년대에 들어와 미합중합동본부의 작전대우에 놓인 조선전쟁작전도도 핵심제타격작전이었다.

21세기에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방단의 우선순위에 빠졌이 올려놓은 미제는 우리의 평화적권리를 빼앗고 무장해제를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득불 3차례에 걸쳐 핵시험을 진행했고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영예도 빛나게 떨치고있다.

미국의 독점물로 되었던 군사기술적 우세는 드디어 끝났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된것은 승리자 우리이며 패배자가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의 핵보유로 하여 핵무기에 의지한 미국의 대조선대시정책은 총과산에 직면하였다.

오바마정권이 우리의 핵포기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핵》정책이라는것을 들고 나온것도 핵으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완전히 좌절된 상태에서 막무대이하여 선택한 정책이다.

후러는 력사는 승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참패는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다.

미국이 남조선 피괴들과 야합하여 핵소동을 일으키며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지만 그로 하여 차폐질것은 최종결명방에 없다. 앞으로 세계는 미국의 운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갈나가는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 향 복 서

◇ 미국이 우리에게 바친 첫 항복서는 조선 정전협정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한 미국 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를 지 못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승리없는 전쟁, 이것은 미국력사에 없는 불행이다.》 그가 남긴 이 고백은 오늘날 미국의 패배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처럼 전해져나오고있다.

조선전쟁이전에 미국은 정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해본적이 없었다.

1945년 미군전함 《미추리》호의 함상에서 일본이 항복서에 수표한 후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공적이 자기에게 있는것처럼 얼마나 기고만장했었는가. 하지만 그로부터 8년후 중국내륙 처음으로 조선인민에게 수치스럽게 항복서를 바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승리자는 당당히 받고 패배자는 할수 없이 바쳐야만 하는것이 항복서이다.

◇ 미국으로부터 항복서를 계속 받아낸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에게 항복서를 바치기만 한것은 미국의 전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과 싸워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한것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만 우리 인민에게 항복서를 바친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 현대에도 끊임없이 항복서를 바쳤다.

《후에블로》호사건때에 미합중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사죄문을 바친 미국대통령 존슨은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그것 하나》이라고 우는소리를 쳤었다. 그러나 미국은 1969년에 있는 군용직속기사건때에 비행사들을 보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우리에게 사죄문을 보냈고 1994년 12월 미군정찰속기사건때에 우리의 명목 불법침입을 인정하고 조종사들을 돌려보내줄것을 제기하여 당해문에 수표를 하였다.

《권력사적기구를 통해 사죄할 줄 모른다.》고 호호치던 미제가 조미대결전의 권력사적과정에 머리를 꼭 수그리고 사죄문 등의 항복서를 련속 가져다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상반되는 이 두 전통은 언제나 법칙처럼 흘러왔다. ◇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줄도 없게 모조리 쏟아버리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혁명무력의 단호한 결심이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에게 항복서를 바친 패배의 전통을 망각하고 북침핵전쟁소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지금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있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미국자신의 최종결명을 앞당기는 것으로 필연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올해 진승절을 맞아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정예한 포성을 올렸다. 남조선 및 아시아태평양주둔 미제침략군기지는 물론이고 철야의 아성인 미국본토도 우리 전략군의 명중타격권안에 들어있다.

조미대결전에서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미국의 멸망 또한 확정적이다.

## 세기를 이어 빛나는 전승의 력사

로씨야신문 《올라지보스트크》는 조선은 미제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의 력사는 조선인민이 새로운 승리의 한계지를 또다시 기록하게 하였었다.》

스무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첫 인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김일성대원수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

은 패배를 모른다고 호언장담하던 미제를 타승하였다.》

오늘 조선은 그 어떤 련속도 감히 범접 못하는 핵보유국으로,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쏟아버리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본사기자

## 최후승리자는 누가 될것인가

지금 조미대결전이 매우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는 과연 누가 될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왔다.

지난해 3월 한 피괴인민이 우리 공화국에 제3차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미행정에서 떠도는 분위기에 대해 보도한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워싱턴내부에서는 《조선핵문제》해결에서 미국의 주도적역할에 대한 회의심과 패배주의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는것이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오바마를 비롯하여 행정부당국자들은 미국남조선공조를 취하며 우리의 인공위성발사에 뒤여 진행된 제3차 핵시험에 《강력한 응징》으로 대처해나간다고 요란하게 떠돌아다녔다. 공개적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친 미국은 실지로 돌아앉아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몹시 전전긍긍하였다.

가소로운것은 남조선피괴들이 상전이 걸로 허세를 부리며 쏟아놓은 그 말을 귀가 항아리만 하여 듣는 하 루강이지 범부서울줄 모르는 격으로 《단호한 응징》을 떠들어댄것이었다. 그러나 남조선피괴들도 백악관내부에서 만연되고있는 패배의 분위기를 감추고있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미행정부의 당국자들과 대조선문제전문가들은 《조선핵문제》해결을 놓고 미국은 이제 할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 지금은 너기가 좀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남조선피괴들의 잔등을 계속 떠밀었다고 한다. 미국부성의 한 고위인물은 남조선의 한 대료단을 만난 자리에 《미국은 지금 지체되고 북조선에 손을 내밀수가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이 나서서 북조선과의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피괴인민은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행행전라도 없고 백악관의 골치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국회의원들은 논란의 개구리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대화이긴 압박이건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라느니, 《핵무장한 북조선의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느니 하며 떠돌아다니고 개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서있고 패배자의 자리에는 미국이 꿰어앉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미대결에서 승리자의 위치와 패배자의 자리는 오래 전부터 규정되어있다.

미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절대로 이 위치를 뒤바꿀수 없다.

본사기자

## 《상 승 장 군》들의 말로

미국은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여러 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미군장성들을 참가자로 전쟁을 승리적으로 계속할것처럼 호언장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유럽에서 사단장으로서 싸운바 있는 필리핀에 상봉하여 일본군을 격파하고 마닐라에 입성한것으로 하여 유명해진것이다.》

그는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하지 않고 자기 사단부대의 전투보장을 위하여 스미스공대를 오산계선에 진출시켰다.

미군복을 입은 저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인민군대가 달아날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스미스공대는 도리어 인민군대와 조우하여 퇴각되고말았다.

민은 이에 대해 대아메리카 합중국 의 가장 큰 수치라고 하면서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

다듬은다는 《장군》의 체면이 되고 다 집어던지고 졸병의 옷을 갈아입은것 황황히 도망쳤 다. 그는 36일동안 거지보다 못하게 숨어다니며 방랑생활을 하다가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생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군으로서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은 포로가 되는것이라고 떠벌이던 민이 바로 포로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던것이다.

《무덤장군》 스미스와 된 워커

《명성》을 펼쳤다.

하지만 이 사단은 조선전쟁에 뛰어들어 조선부부의 장진호반까지 침입하였다가 우리 인민군대의 포위공격에 의하여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연방을 폭파시킨 파괴적이고 중상자와 시체를 한꺼번에 매장해버린 사단장 스미스는 얼마 안되는 패잔병들을 실은 배우에서 《그렇

듯 많은 부하의 시체를 버리고 지휘관이 떠나가는 일이란 175년간의 해병대력사에 없는 일》이라고 탄식하였다.

이로 하여 스미스에게는 《무덤장군》이라는 별명이 차례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전쟁초기에 미8군사 항복서에서 수표하고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자리에 맥아더, 릿지웨이 순서대로 올라앉았다가 철권정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것은 클라크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때 이 팔리아주론 파쇼도 이월란드군과 무솔리니 침략군의 항복을 받아들여 우물쭈물거리면서 조선에서도 다시한번 그러한 《공적》을 세우리라고 어리석게 꿈을 꾸었다.

그는 북조선의 도시들을 지도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떠벌이면서 탁치는데로 폭격하여 모조리 파괴하고 모조리 불태우

명관으로 《유엔군의 지상작전을 총지휘하여 일시적인 강점지역에서 무고한 조선인민을 수많은 학살한 한 위커는 중증크를 앞세우고 제2조선부대들의 포위공격과 지뢰전에 걸려 황천국이 되고 말았다.

《당당하던 개개도 위풍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서는 두줄기의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본사기자

## 새 사회 건설을 호소

인디아수상 나렌드라 모디가 15일 독립절에 즈음하여 헌연에서 전체 인민이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인디아는 앞으로 세계적

인 제작업종심지로 되어야 하며 2019년까지 깨끗하고 문명한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다같이 사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대규모은행들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속 삭감하여 주민생활을 황폐시키고있는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최근 《집단지위권》행사를 용인한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각계층 인원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전쟁과 《집단지위권》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참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 이 라 크 공 습 에 깔 린 용 흥 한 속 심

지금 이라크정권은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여기고있는 이라크,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강화에 힘을 넣고 있다.

그것은 이라크정권이 품고있던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 나가있기때문이다.

대표적실례로 미국과 맺은 전투기구매계약문제는 미국은 맺었던 계약이 이라크와 계약을 맺고 전투기를 넘겨주겠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주지 않고있다. 얼마전 이라크수상 알 말리키는 미국과 전투기구매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오매 걸릴줄 몰랐다고 하면서 공중지원이 있더라도 미국이 어떻게 할것인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로씨야와 벨라루스에서 들여오는 전투기가 인차 도착한다고 말하였다. 며칠 지나 로씨야로부터 5대의 전투기가 첫 비행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시아파파정권이라는 이라크의 현 시아파정권과 정치, 경제, 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언론들을 발동하여 이라크 이라크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무인기를 띄워 정보활동을 벌이고있다. 미국의 대량의 군사부대를 넘겨주고있다는 뉴스마저도 믿지 않는 보도자료들을 세계에

베를리고있다. 이란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있다.

이라크가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현 사태를 평정하는 경우 미국의 중동지역전략은 붕괴에 빠질수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하면서 이란에 대한 비난 선전을 늘어놓는 한편 로씨야와 이란 등의 나라들과의 관계강화에 나선 이라크가 저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허물어저가는 중동지역전략에 새로운 임금을 불어넣을 목적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목적은 중동에서 나날이 강화되고있는 극단적인 무장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쟁과 《아랍의 봄》으로 하여 무법천지처럼 된 여러 중동나라들에서는 각이한 무장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활동하고있다. 때문에 미국은 발원점을 못하고있다. 언제, 어느 단계가, 미국의 어느곳을 노리고 군사적공격을 단행할지 모르기때문이다.

에멘에서도 이라크처럼 시아파이슬람교반란군과 순니파이슬람교반란군들이 교전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미국은 에멘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있다. 아랍정치연구 및 발전센터의

## 팔 란 앞 나는 나 이 스 리 인 을

지난 7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군이 이라크에 선별적공습을 가하는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미국방성은 무인기를 비롯한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이라크북부지역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2011년 오바마정권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고있는 공습이다.

현재 이라크의 북부지역은 《이슬람교국가》가 차지하는 무장집단이 차지하고있다. 국제사회에 《달 카이다》와 연계되었던 미 순니파반란군이라고 알려져있는 이 집단은 올해초부터 이라크북부의 주요도시들을 장악하고 점차 전파를 확대하여왔다. 지난 6월에 들어와 이라크 북부의 여러 도시들을 장악하고 7월에는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수리아의 동부지역을 손에 넣은 이 집단은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지역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교마을 5곳을 포 점하고 수리아북부지역에 있는 한 군사기지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슬람교국가》의 군사적공세로 하여 현 이라크정권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중동의 역평판계가 예상치 않게 변화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이 《이슬람교국가》가 차지하고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습에 나선

한 전문가들은 《예멘에서 이라크처럼 우리도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폭력행위는 더 많은 폭력행위와 인간미를 낳을것이다. 반란군들의 폭력행위로 더 많은 호전분자들이 《이슬람교국가》처럼 정세를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무장을 들고나설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바마정권은 《이슬람교국가》의 무장세력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전쟁을 벌린 결과가 물거품이 되고말고 중동지역전략이 총파산되는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안전도 보장할수 없다고 야단치고있다.

이로부러 오바마는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명명하였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의 이라크공습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각이한 선택들이사의 총동과 대결상황을 만들어놓은 미국이 지금 그 후과를 가셔보겠다고 싶지만 사태가 더욱 험악하게 흐를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결론은 미국의 군사적공격의 희생물이 된 나라에서는 별의별일이 다생기게 되며 따라서 군사적행위를 키워 자기 나라의 어깨 해서나 자기자 지켜야 평화적 발전을 담보할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수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이 《이슬람교국가》가 차지하고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습에 나선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이 《이슬람교국가》가 차지하고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습에 나선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이 《이슬람교국가》가 차지하고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습에 나선